

# 성인기 애착측정의 배우자 애착측정활용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Hazan과 Shaver의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Problems in Using Adult Attachment Inventory as Spousal Attachment Inventory

-Focusing on Hazan & Shaver's Adult Attachment Inventory-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시간강사 황은\*

Department of Consumer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art-time lecture : Whaung, Eu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problems in using Hazan & Shaver's adult attachment inventory as spousal attachment inventory. In summary, Hazan & Shaver's forced-choice inventory is required to caution in using for spouse attachment inventory because of the disproportionally higher secure-attachment type ratio(72% - 89%). It was previous reseaches that used multi-item Likert inventory instead of Hazan & shaver's forced-choice inventory for result analysis because of disproportionally higher secure-attachment type ratio. Although Hazan & shaver's forced-choice inventory was mostly used for young unmarried adults, Using Hazan & shaver's forced-choice inventory as spouse attachment inventory for married adults seem to be inappropriately. Hazan & Shaver's multi-item Likert inventory has the problem of poor reliability in insecure-avoidence factor especially. Hazan & Shaver's one item Likert inventory has the problem of social desirability.

---

▲ 주요어 (key word): 성인기 애착, 성인기 애착측정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forced-choice inventory)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multi-item Likert inventory)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one item Likert inventory),

### 1. 서론

발달과 함께 성인기로 전환해 가면서 애착대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기에서는 결혼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애착관계이고 이 애착관계가 안전기반을 제공하여 준다(Holmes,1990). 그러므로 성인기 애착연구를 위

해서는 배우자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있고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한 낯선 상황절차가 기술적 측면과 그와 관련된 관찰 및 실험적 절차면에서 잘 타당화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성인기에서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측정도구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복잡한 상태이다(Sperling, Foelsch & Grace, 1996; Sperling, Berman, & Fragen, 1992; Lyddon, Bradford, & Nelson, 1993;

---

\* 주저자 : 황은 (E-mail : shbyun1@korea.com)

Fishler, Spering, & Carr, 1990).

즉, 유아기 애착연구의 경우, 비록 낯선 상황절차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고 있고, 이를 수정한 연구들이 얼마나 타당한 결과를 보이는지에 관심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Greenberg, Cicchetti & Cumming, 1990), 이미 수백편의 연구들이 유아기 애착에 초점을 두고 발표되어왔고, 애착과 낯선 상황절차가 동의어로 보일 정도이며, 이미 연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Bretherton, 1992). 청소년기 애착연구의 경우, 애착측정도구로 Parker, Typling과 Brown(1979)의 PBI, Kenny(1987)의 PRQ, 그리고,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가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주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를 사용하고 있다(Lopez & Grover, 1993). 이 측정도구의 애착대상은 부모이며, 초등학교 6학년(예; Pappini & Roggman, 1992)에서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인성 및 사회적 발달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예; Kenny, 1987; Armsden & Greenberg, 1987;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Pappini & Roggman, 1992; Palladino, Schultheiss & Blustein, 1994; McCormik & Kennedy, 1994;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Paterson & Pryor & Field, 1995; Rice & Cumming, 1996; Marcus & Betzer, 1996).

이러는 가운데, Hazan과 Shaver(1987)가 개발한 자아보고식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와 이로부터 파생된 도구들이 개발됨으로써 성인기 애착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도 소개되어 이를 적용한 성인기 애착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 측정도구는 애착대상을 특별히 배우자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특별히 배우자와의 애착만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애착측정도구가 없는 가운데,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의 애착대상부분만을 배우자로 수정하여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다(예; 박의순, 1998; 황은, 2000). 그러나, 이들 자아보고식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인식되어 본 연구에서는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우선, 1절에서는 기존의 성인기 애착에 대한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으며 지난 몇 년간 성인기 애착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와 이로부터 파생된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들에 대해 측정도구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3절에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성인기 애착연구의 개관

성인기 애착연구의 경우, 최초의 연구는 1970년대 초에 발표된 성인의 사별에 대한 연구(예; Bowlby & Parker, 1970; Parker, 1972)와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예; Weiss, 1973, 1977)로 알려져 있다(Bretherton, 1992 재인용). 이후 성인기 애착 연구는 크게 셋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Cicirelli(1983)로 대표되며, 노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의 애착을 다룬 연구이며, 둘째는 George, Kaplan과 Main(1985)으로 대표되며 내적표상(Bowlby의 내적표상의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임)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그리고 셋째는 Hazan과 Shaver의 애착연구와 이로부터 파생된 연구이다. 이상과 같은 성인기 애착 연구의 뚜렷이 구분되는 세 가지 연구의 경향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cirelli(1983)로 대표되며, 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의 애착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icirelli(1983)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애착과 현재 부모를 도와주는 정도와 미래에 도움을 줄려는 의지,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Cicirelli(1983)가 사용한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는 부모자녀간에 가치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와 친밀한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노부모와 자녀간의 안정형, 불안정-회피형, 불안정-양가형과 같은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유대의 강도를 측정하고 있다. 유은희와 박성연은 1989년에 이 Cicirelli(1983)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성인자녀간의 애착과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Cicirelli(1983)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의 애착을 다루었으므로 여기에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유은희(1991)는 부모와 신혼초기 성인자녀간의 애착과 현재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앞서 청소년기 애착측정도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언급되었던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측정도구와 이에 자율감 측정도구를 부가하여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애착을 높은 애착/높은 자율감, 높은 애착/낮은 자율감, 낮은 애착 /높은 자율감, 낮은 애착/낮은 자율감의 4유형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있다. 조병은, 유은희, 이정순과 최혜경(1996)은 유은희(1991)의 애착측정도구를 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딸간의 3세대간 애착과 심리적 적응(우울감, 자존감)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사용하였고, 박성연, 조병은, 이정순, 유은희, 유명희, 이숙, 김상희, 최혜경과 박응임(1995)은 영아기, 아동기, 청년기에 걸쳐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의 인성 및 사회적 발달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유은희(1991)의 애착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둘째, George, Kaplan과 Main(1985)으로 대표되며 내적표상(Bowlby의 내적표상의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임)에 초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명 AAI로 불리우는 이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는 성인기 애착측정을 위해 내적표상을 평가하며, 면접법이다. 그리고, George 등(1985)은 이 내적표상을 자아와 타인에 대한 내적표상으로 한정된 Bowlby의 내적표상개념보다 훨씬 더 넓게 확장하여 정서, 주의, 기억,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미 만들어 놓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은 주로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억과 초기 경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초기 경험이 자신의 인성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 다음, 영유아기 및 아동기와 유사한 세 가지 애착유형과 일치하는 대담양식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면접결과 나온 대담양식들을 세 가지 애착유형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미리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런 다음, 면접후의 답변을 이 기준에 의해 평가자들이 분석하여 피면접자들의 성인기 애착유형을 결정내린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 가지 애착유형으로 분류하며, 안정형(secure), 무시형(dismissing), 몰입형(preoccupied)으로 각각 명명된다. 대충, 훈련받은 평가자들은 피험자가 애착경험을 가치있게 평가하고, 애착일화들을 객관적이면서 쉽게 이야기할 때 안정형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피험자가 구체적인 애착경험을 회상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려워하고, 애착관계를 가치없게 평가할 때 무시형으로 분류하며, 피험자가 애착관계에 대해 일관성없이 이야기하고, 혼란스러움을 보일 때 몰입형으로 분류한다. 이 AAI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면접자들은 이 면접내용을 이미 만들어진 기준들에 준거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낼 수 있도록 일련의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체로 임상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AI를 활용한 연구로는 Adam, Sheldon-Keller와 West(1996)의 성인기 애착과 자살경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및 Cole-Detke와 Kobak(1996)의 성인기 애착과 섭식장애 우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셋째, Hazan과 Shaver의 애착연구와 이로부터 파생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에 뿌리를 두고 시작된 이에 속한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들을 소개하면,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 Griffin과 Barthoromew(1994)는 Barthoromew와 Horowitz(1991)의 측정도구,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 Hazan과 Shaver의 다문항리커트측정도구, Simpson의 측정도구, Collins와 Read의 측정도구가 있다.

이를 적용한 연구들은 다수이나, 각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을 각각 한 개씩만 제시하고자 한다. Kirkpatrick과 Davis(1994)는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성인기 애착과 어떠한 애착유형끼리 이성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는지와 관계의 질 및 관계의 지속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Griffin과 Barthoromew(1994)는 Barthoromew와 Horowitz(199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성인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자기수용감, 디스트레스, 사교성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Levy와

Davis(1988)은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성인기 애착과 관계특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전효정(1996)은 Hazan과 Shaver의 다문항리커트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성인기 애착과 부부간의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Simpson(1990)은 Simpson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성인기 애착과 관계의 질 및 관계와해후의 정서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Collins와 Read(1990)은 Collins와 Read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성인기 애착과 관계의 질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 2.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와 이로부터 파생된 성인기 애착측정도구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는 유아기 애착에 대한 Ainsworth의 애착유형연구로부터 파생된 것임으로 먼저 유아기 애착의 지속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과 성인기 애착은 지속성을 겪으며, 이 지속성이 일어나는 것은 내적 표상의 지속성에 의해 좌우된다. 유아기에 부모와 형성한 세 애착유형은 동시에 상이한 내적 표상을 함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내적 표상은 생후 6개월에서 5년사이에 결정적으로 형성되고 만 5세가 지나고 10년 이후에도 변화가능하지만, 아동기가 지나면서 그 변화가능성이 매우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이 내적 표상은 새로운 정보에 개방되어 있지만, 동시에 의식영역밖에서 작동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내적 표상과 일치하는 환경을 창조하고 선택하게 하며(Sroufe & Fleeson, 1986), 자신의 내적 표상을 확신케하는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되거나 파트너를 선택하게 함으로써(Collins & Read, 1990; Kirkpatrick & Davis, 1991) 한 번 형성된 후에는 변화에 점점 더 저항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은 성인기에도 지속되게 된다.

위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는 Hazan과 Shaver(1987)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Hazan과 Shaver(1987)는 유아기 세 애착유형이 동시에 함의하고 있는 상이한 세 개의 내적 표상 즉 자아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의 여부와 타인을 신뢰하고 필요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유용성있는 사람으로 보는가의 여부에 따른 세 개의 내적 표상이 성인기 애착을 형성하는데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인기 애착은 곧 성인기 이성간의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간주하고, 이 세 개의 내적 표상이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 성인기 이성간의 낭만적인 사랑유형을 측정도구로 만들었다. 이 측정도구는 (표1)에 제시한 Hazan과 Shaver(1987)의 범주형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이다. (a)는 안정형을 뜻하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아와 필요할 때 지지해주고 도움을 줄 타인과 외부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함의된 사랑유형=성인기 애착유형을 뜻한다. (b)는 불안정-회피형을 뜻하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아와 필요할 때 지지

해 주고 도움을 줄 타인과 외부세계에 대한 불확실한 양가적인 내적 표상이 함의된 사랑유형을 뜻한다. (c)는 불안정-양가형을 뜻하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아와 필요할 때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지 않을 타인과 외부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함의된 사랑유형을 뜻한다. 특히 불안정-양가형 문항은 해소되지 않은 불충분했던 관계에 대한 애석함으로 인해 극도의 친밀감을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성인기 애착측정도구 문항

문항내용	응답방식
(a)나는 남편과 쉽게 가까워지고, 남편은 믿을만하고 남편도 나를 염려해준다고 느낀다	(a), (b), (c) 중 응답자와 가장 일치하는 것 한 개만을 표시함.
(b)나는 남편과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고 남편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기가 어렵다	
(c)나는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으나,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기가 어렵고, 때때로 남편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한다	

출처 : 박의순(1998)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로부터 이에 뿌리를 두고 제시되어진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들은 Barthoromew와 Horowitz의 측정도구(Barthoromew & Horowitz, 1991; Griffin & Barthoromew, 1994), Collins와 Read의 측정도구(Collins & Read, 1990),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전효정, 1996).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Feeny 와 Noller, 1996)가 있다.

Barthoromew와 Horowitz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Barthoromew와 Horowitz는 Hazan과 Shaver가 말한 것처럼 '자아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에 근거하여 성인기 애착을 측정할 수 있다면, 자아에 대한 내적 표상은 긍정/부정적 내적 표상으로,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도 긍정/부정적 내적 표상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각각의 조합에 의해 네 개의 애착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데 착안하였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아에 대한 내적 표상의 정도는 의존성(자율감이 결여된 것을 의미함)의 정도로 이어지고, 필요할 때 지지해주고 도움을 줄 타인과 외부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의 정도는 타인에 대한 회피정도로 이어져 긍정/부정적 자아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 각각 2가지 유형들의 조합에 의해 4가지 애착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표2)에 제시한 것은 Barthoromew와 Horowitz의 범주형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이다. (a)는 안정형(secure)을 뜻하며, (그림1)의 1칸에 해당하는 긍정적자아와 긍정적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함의된 애착유형을 뜻한다. Hazan과 Shaver의 안정형과 같

다. (b)는 몰입형(Preoccupied)을 뜻하며, (그림1)의 2칸에 해당하는 부정적 자아와 긍정적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함의된 애착유형을 뜻한다. Hazan과 Shaver의 불안정-양가형과 같다. (c)는 두려움-회피형(Fearful-avoident)을 뜻하며, (그림1)의 4칸에 해당하는 부정적 자아와 부정적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함의된 사랑유형을 뜻한다. Hazan과 Shaver의 불안정-회피형과 같다. (d)는 무시-회피형(D dismissing-avoident)을 뜻하며, (그림1)의 3칸에 해당하는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함의된 사랑유형을 뜻한다. Hazan과 Shaver의 애착유형에는 없는 유형이다(Barthoromew & Horowitz, 1991; Griffin & Barthoromew, 1994).

		자아에 대한 모델 (의존성정도)	
		긍정적	부정적
타인에 대한 모델 (회피성정도)	긍정적	칸 1 안정형(secure) (자율감과 친밀감에 대한 편안함)	칸 2 몰입형(preoccupied) (의존성과 관계에 대한 몰입)
	부정적	칸 3 무시-회피형 (dismissing-avoidant) (친밀감의 회피, 강압적 자율감)	칸 4 두려움-회피형 (fearful-avoidant)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회피)

<그림 1> Barthoromew와 Horowitz의 애착범주분류

<표 2> Barthoromew와 Horowitz의 범주형 성인기 애착측정도구

문항내용	응답방식
(a)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나에게 비교적 쉬운 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할 때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때때로 홀로 남겨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a), (b), (c), (d) 중 응답자와 가장 일치하는 것 한 개만을 표시함.
(b)나는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자주 내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c)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불편해진다. 나는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나 내가 타인을 완전히 믿거나 혹은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타인과 가까워지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걱정한다.	
(d)타인과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때, 나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내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대단한 중요한 일이다. 내가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그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출처 : 장희숙(1998)

다음으로 Collins와 Read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llins와 Read는 이미 형성된 내적 표상은 일종의 인지적/정서적 모델로서 발달과 함께 정교화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유아기때보다 더 복잡한 분화를 이루게 됨으로 유아기 애착과는 달리 성인기 애착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됨으로 범주형 측정도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에 있는 문장들을 각각 분리하여 13문항으로 개작한 Simpson의 측정도구(Simpson, 1991)에 자신이 문항을 추가하여 완성하였다. (표3)은 Collins와 Read의 다문항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이다. 총 18문항이며, 요인분석과정을 거친 결과, 의존감요인, 불안감 요인, 친밀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이다. 의존감 요인은 편안하게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형과 관련이 있다. 불안감(anxiety)요인은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형과 반대된다. 친밀감(intimacy)요인은 자신이 상대방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형과 관련이 있다. 연구에 적용시, 각 요인별로 각각 분석하기도 하고, 세 요인을 기준으로 판별분석을 통해 애착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하기도 하며, 의존감요인과 친밀감요인을 더한 후 불안감요인을 뺀 점수로 분석하기도 한다(Collins & Read, 1990). (표3)에서 3, 4, 7, 13, 14, 17문항은 Hazan과 Shaver의 안정형의 특징과 일치하는 문항이고, 2, 5, 15, 16, 18문항은 Hazan과 Shaver의 불안정-회피형의 특징과 일치하는 문항이며, 6, 8, 9, 10, 11, 12, 문항은 Hazan과 Shaver의 불안정-양가형의 특징과 일치하는 문항이다(Collins와 Read, 1990).

<표 3> Collins와 Read의 다문항 성인기 애착측정도구

문항내용	응답방식
<b>의존성</b> 1.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 2.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지 않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편하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어 주리라고 생각한다. 5.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6.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의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함
<b>불안감</b> 7.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8. 나는 종종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걱정한다.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10. 나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 않게 될까봐 걱정한다.	

11. 나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12.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일심동체 되기를 원하는 나의 바램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 친밀감**
13.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는 편이다.
14. 나는 어떤 사람이 나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15.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다소 불편함을 느낀다.
16. 나는 어떤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게 되면 불안하다.
17.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
18. 종종 내 남편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친밀해지기를 내게 원한다.

출처 : 김덕일(1997)

\*는 요인내에서 합산을 할때 역산하여야 하는 문항을 의미함

한편,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는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그대로 두면서 한 문항만 선택하도록 하는 대신에 각 세 애착유형문항 모두에 대해 그 정도를 7점척도로 평가하도록 개작한 것이다. 각 문항별로 따로 분석한다(Levy & Davis, 1988)

끝으로,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는 21문항의 측정도구이나 국내에는 17문항으로 간추려 소개되었다(전효정, 1996). 안정요인, 불안정-회피요인, 불안정-양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이다. 각 요인별로 따로 분석한다. (표4)의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에 제시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와 그로부터 파생된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이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성인기 애착측정도구

문항내용	응답방식
<b>안정요인</b> 1. 나는 남편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다. 2. 나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3. 나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남편과 나눈다. 4. 남편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한다 5. 나는 남편이 내가 필요로 할때 나를 위해 있어 주리라 믿는다. 6. 나는 남편과 인간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남편이 나를 진정으로 대해 준다고 믿는다. 8. 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함
<b>불안정-회피요인</b> 9. 나는 남편과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10. 나는 남편과 독립된 시간이 필요하다. 11. 나는 대부분의 일(걱정, 관심등)들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둔다. 12. 나는 남편과 많은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불안정-양가요인	
13. 나는 남편과 지금보다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14. 나는 남편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15. 나는 남편이 나를 깔보거나 무시할까봐 걱정한다.	
16. 나는 남편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만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7. 남편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출처 : 황은(2000)

### 3.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들을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에는 범주형 성인기 애착측정도구, 단문항 성인기 애착측정도구, 그리고 다문항 성인기 애착측정도구가 있다. 다음에서는 단문항 및 다문항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리커트형으로 묶었다. 그리하여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범주형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와 리커트형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로 나누어 이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1)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최근, 성인기 애착측정도구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측정도구는 Hazan과 Shaver의 측정도구(Hazan과 Shaver, 1987)이다. 비록, 장휘숙(1997)이 Barthoromew와 Horowitz의 측정도구(1991)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미혼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연애기의 남녀 관계와 부부관계는 차별화되기 때문에(박의순, 1998)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그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이며, 이 같은 경향은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가 Ainsworth등(1978)의 유아기 세 애착유형과 일관성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더 애착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간주되고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연구가설대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인 만큼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잇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측정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단, 1)2)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Hazan과 Shaver

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애착유형의 비율이 Ainsworth등(1978)의 유아기 애착유형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3)진지한 관계나 결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애착유형의 비율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유아를 가진 부부 37쌍을 연구한 Howes, Markman 그리고, Lindahl(1990)의 연구에서 남편의 86%, 아내의 94%가 자신을 안정적 애착유형으로 평가하였으며, 137쌍의 신혼기 부부를 연구한 Senchak와 Leonard(1989)의 연구에서도 83%가 자신을 안정적 애착유형으로 평가하였다. Kobak과 Hazan(1991)은 24세에서 46세의 연령분포를 가진 4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남편의 80%, 아내의 72.5%가 안정적 애착유형임을 보고 하였으며, 불균형적인 애착유형비율로 인해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분석에서 제외시키기 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기혼자나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일관성있게 애착유형이 안정형에 매우 편중되는 연구결과를 보여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Hazan과 Shaver(1995) 그리고 Kobak과 Hazan(1991)은 기혼자에게서 보이는 높은 안정형의 비율을 부부관계와 같은 헌신적인 관계의 맥락속에서 불안정적 애착이 안정형 애착으로 변화함으로써 비롯된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기혼자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높은 안정형 비율은 결혼을 통해 이미 애착유형이 안정형인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에 편입되며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애착유형이 불안정형인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에 편입되지 않으며 결혼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결혼관계에 속해 있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Kirkpatrick과 Davis(1995)의 연구는 미혼 남녀 쌍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이 관계의 안정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불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단 시일내에 와해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연구도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고, 불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었지만, 관계의 지속성이 결혼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필요조건이며, 결혼의 유지와도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간

1) 이 연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애착측정도구내의 애착대상을 특별히 배우자로 수정하지 않았음. 반면, 10쪽의 박의순과 황은의 연구는 애착측정도구내의 애착대상을 배우자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음.

2) 이 연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애착측정도구내의 애

착대상을 특별히 배우자로 수정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구임. 반면, 10쪽의 박의순과 황은의 연구는 애착측정도구내의 애착대상을 배우자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음.

3) (표5)의 Kirkpatrick과 Davis(1994)의 비교란과 (표5)바로 하단의 각주를 참고

<표 5>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사용한 애착유형 비율비교

연구자(년도)	삼지선다형 측정도구	안정형 (%)	불안정-회피형(%)	불안정-양가형(%)	비고
Hazan과 Shaver(1987) 1차연구		56	19	25	42%가 기혼자, 28%가 이혼자나 과부, 9%는 동거자, 31%는 데이트중인자로 구성됨.
Hazan과 Shaver(1987) 2차연구		56	25	19	남녀대학생, 평균연령은 18세
Mikulincer, Florian과 Weller(1993)		57	28	14	남녀대학생. 연령 범위는 20세에서 37세. Hazan과 Shaver의 삼지선다형 측정도구를 다문항 리커트화한 측정도구(연구자 자신이제작함)와 동시에 사용하여, 두 측정도구 상 애착유형이 일치하지 않은 대상자 13명을 제외시킨 후의 비율임.
Mikulincer, Florian과 Tolmacz(1993)		56	25	19	남녀대학생. 연령 범위는 22세에서 33세. Hazan과 Shaver의 삼지선다형 측정도구를 다문항 리커트화한 측정도구(연구자 자신이제작함)와 동시에 사용하여, 두 측정도구 상 애착유형이 일치하지 않은 대상자 5명을 제외시킨 후의 비율임.
정효택(1994)		56.6	28.4	15.0	남녀대학생
장휘숙(1997)		60.00	28.29	11.71	남녀대학생, 평균연령은 남녀 각각 21세, 19세임
aKirkpatrick과 Davis(1994)					지속적이면서 진지한 관계중인 대학생들(남자의 86%, 여자의 87%가 애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응답하였고, 94%가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음, 또한, 84%이상 7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며, 64%는 최소한 1년 동거중에 있었고, 8%만이 관계지속기간이 3개월미만이었음.)
	남	74.2	14.2	11.7	
	녀	76.7	14.6	8.8	
aHowes, Markman과 Lindahl(1990)					유아를 가진 기혼남녀
	남편	86			
	아내	94			
aSenchak와 Leonard(1989)		83			신혼기의 기혼남녀
aKobak과 Hazan(1991)					기혼남녀, 연령범위는 24세에서 46세.
	남편	80			
	아내	72.5			
b박의순(1997)					기혼여성으로서. 연령범위는 20세에서 69세
	아내	79.1			
b황은(2000)					기혼남성으로서, 연령범위는 23에서 40세
	남편	89.1			

a 진지한 관계나 결혼한 대상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b 결혼한 대상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면서 동시에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중 범주형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한 연구

접적으로 지지해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애착유형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불안정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Kirkpatrick과 Davis(1995)의 연구결과나 애착유형과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볼 때, 기혼자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높은 안정형의 비율은 결혼망에 의해 상이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 중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걸러진 결과 비롯된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기혼자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안정형애착의 비율을 부부관계라는 현실적인 맥락에서 안정적 애착으로의 변화라는 측면과 결혼망에 의한 애착의 필터역할에만 초점을 두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즉, 결혼에 의해 애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영향력의 결과는 범주형 보다는 리커트 측정도구가 더 잘 반영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의도와는 달

리 애착유형분포의 편중으로 인해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연구분석에 사용한 Kobak과 Hazan(1994)의 연구는 이같은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여기서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애착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애착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한 국내의 두 연구를 추가분석하였다.

우선, 범주형 측정도구를 배우자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도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 애착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박의순(1997)의 연구에서는 전체 661명중 79.1%가 배우자와의 안정적 애착유형을 보고 하였으며, 성인전기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황은(2000)의 연구에서도 89.1%가 배우자와의 안정적 애착유형을 보고하였다. 단,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의순(1997)의 연구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황은(2000)의 연구를 비교해볼 때 안정적 애착유형비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여 재분석하였을 때 비슷한 애착비율을 보였다. 즉, 박의순(1997)의 연구는 배우자 애착

과 사랑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며, 20세에서 69세사이이고, 중졸에서 대학원졸까지 있으며, 가족소득은 110만원에서 311만원이었고, 현재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황은(2000)의 연구는 배우자 애착과 직무성숙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며, 23세에서 40세 사이이고, 대학졸이상이며, 가족소득은 70만원에서 800만원이었고, 현재 부인과 동거하고 있는 기혼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는 남녀간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측정도구이기 때문에 박의순(1997)의 연구결과와 황은(200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안정형 비율의 차이를 단순히 성에 따른 차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을 제외한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고, 교육수준, 연령, 취업상태를 통제하여 애착비율에서의 변화를 추가 분석하여 보았다. 박의순(1998)의 연구대상자들을 황은(2000)의 연구대상자들과 같이 교육수준을 대학졸업자이상으로 통제하였을 때, 안정형의 비율이 84.3%로, 연령수준을 40세 이하로 통제하였을 때 안정형의 비율이 82.7%로, 취업상태를 사무직으로 통제하였을 때 안정형의 비율이 87.9%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연령, 취업상태를 동시에 통제하였을 때에는 안정형의 비율이 89.8%로 나타나 황은(2000)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은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중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할 경우, 교육수준, 연령, 취업상태와 같은 변인에 의해 애착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박의순(1997)의 연구에서는 600여명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였고, 교육수준이나 연령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서 다양한 분포를 가진 연구대상자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애착과 관련된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분석상의 어려움이 없었지만, 교육수준이 높거나 연령이 낮은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박의순(1997)의 연구나 황은(2000)의 연구에서나 모두 안정형 애착유형의 비율이 거의 90%에 이르기 때문에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보고자 할 때 불안정애착유형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분석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애착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만을 통제하여 연구할 경우 혹은 연구대상자들의 수적인 측면에서도 소수의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이나 연령에 기초한 배우자 애착의 특수성을 가정해야 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리커트 측정도구가 더 적절한 도구일 수 있음을 역시 시사해 준다. 교육수준이 높은 성인전기 남성을 대상으로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하고자 연구에 포함시켰으나, 너

나나 편중된 안정적 애착유형비율로 인해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연구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리커트 애착측정도구를 사용한 황은(2000)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 2) Hazan과 Shaver의 리커트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Collins와 Read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Collins와 Read, 1990)는 세 편의 국내연구에서도 사용된 바가 있지만,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 측정도구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분석되어지고 있는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덕일(1996)의 연구에서는 의존감요인의 신뢰도가 0.45, 불안감요인의 신뢰도는 0.62, 친근감요인의 신뢰도는 0.49로 매우 낮다. 미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1997)의 연구의 경우, 의존감요인의 신뢰도는 0.70, 불안감요인의 신뢰도는 0.65, 친근감요인의 신뢰도는 0.66이다. 대기업의 남자회사원을 대상(86%가 기혼이었고, 연령은 20세에서 45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30.39세임)으로 한 박광배(1993)의 연구에서는 7점척도가 아닌 예/아니로식의 응답으로 평가하였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3문항을 제외시켰으며, 그 결과, 의존감요인의 신뢰도는 0.56, 불안감요인의 신뢰도는 0.78, 불일성문항의 신뢰도는 0.75이다. 특히, 이 세 연구들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번역문은 각각 다르다. 이 같이 낮은 신뢰도 및 번역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는 이 측정도구의 국내에 사용하였을 경우, 타당성 및 신뢰성에 문제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전효정, 1996)는 전효정(199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1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효정의 연구에서는 총 21문항 중 17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안정요인의 신뢰도는 0.67, 불안정-양가요인의 신뢰도는 0.75, 불안정-회피요인의 신뢰도는 0.50이었고, 이론적 가설인 애착과 갈등해소방법간의 관계가 지지되었으나, 불안정-회피요인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였다.

한편,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Feeny 와 Noller, 1996)는 국내연구분석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장휘숙의 1997년도 연구에서 시도되었지만, 최종연구결과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위에서 제시된 다문항 리커트 애착측정도구들에 비해 문항의 간결성으로 인해 경제적 잇점이 있다. 이 측정도구는 7점형이기 때문에 성인기의 정교화된 애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서로 뚜렷이 대비되는 3개의 문항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역시 사회적인 선호도를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갖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러 문항이 한 문항안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여러 개의 문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이 문항안에 있는 어떠한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로 하여금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문



항의 간결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잇점과 동시에 리커트 척도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혼의 대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사용한 경우 나타난 평균점수와 상관관계(Levy와 Davis, 1988; Gotlib, Roberts 와 Kassel, 1996)를 보면, 이같은 문제점이 미혼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적 선호성이 개입되었다면, 부정적인 문항인 불안정-회피문항과 불안정-양가문항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그 두 문항의 상관관계 역시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야 하나 특히, 두 문항의 상관관계가 두 연구자의 연구에서 모두 일관성있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리커트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와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한 황은(2000)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의 연구분석을 보면, 전효정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총 12문항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안정요인의 신뢰도는 0.87, 불안정-양가요인의 신뢰도는 0.78, 불안정-회피요인의 신뢰도는 0.59 이었고, 이론적 가설인 배우자 애착과 직무성과간의 관계가 지지되었다. 비록 전효정(1994)의 연구와 황은(2000)의 연구간에 최종분석에 포함된 문항수는 틀리지만, 요인분석을 비교하면 유사

성이 높아 적절한 구인타당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효정의 연구에서와 같이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도 불안정-회피요인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분석을 보면, 이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하였을 때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내의 각 문항의 평균점수, 문항간 상관관계, 그리고 (표5)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와의 상관관계 및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 직무애착과 직무의 질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선호성에 의한 의도적 응답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문항의 평균점수를 볼 때, 안정형문항의 경우 6.01, 불안정-회피문항의 경우 2.17 그리고, 불안정-양가형 문항의 경우 1.91로 나타나 안정형문항 점수와 불안정형 문항의 점수간에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에서 보여지는 안정형 문항과 불안정형 문항간의 극단적인 점수 차이는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사용한 경우 나타난 점수(표5 참조)와 상이하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안정형 문항과 불안정-회피형 문항 그리고, 안정형 문항과 불안정-양가형 문항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표 5> Hazan과 Shaver의 단문항/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의 문항 및 요인의 평균(표준편차)과 상관관계

연구자 (년도)	사용한 측정도구	안정형 문항(요인) 평균 (표준편차)	불안정-회피형 문항(요인) 평균 (표준편차)	불안정-양가형문항 (요인) 평균 (표준편차)	안정형 문항 (요인)과 불안정-회피형 문항 (요인)간 상관관계	안정형 문항 (요인)과 불안정-양가형 문항 (요인)간 상관관계	불안정-회피형 문항 (요인)과 불안정-양가형 문항 (요인)간 상관관계	비고
Levy & Davis (1988) 1차 연구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	3.2(1.2) 4.0 <sup>a</sup>	2.2(1.2) 3.07 <sup>a</sup>	2.1(1.2) 3.08 <sup>a</sup>	-.66***	-.14ns	.10ns	미혼남녀 166명 17에서 25세
Levy & Davis (1988) 2차 연구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	3.2(1.3) 4.0 <sup>a</sup>	1.9(1.0) 2.80 <sup>a</sup>	2.0(1.2) 2.67 <sup>a</sup>	-.53***	-.12ns	.04ns	미혼남녀 222명
Roberts, Gotlib & Kassel (1996)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	6.0(2.5) 4.20 <sup>b</sup>	4.0(2.5) 2.80 <sup>b</sup>	4.2(2.5) 2.94 <sup>b</sup>	-.68***	-.11ns	.04ns	대학생 144명 (미혼과 기혼의 비율은 없음)
c 황은 (2000)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	\ 6.01(1.10)	\ 2.17(1.01)	\ 1.91(1.31)	-.59***	-.66***	.59***	기혼남성 376명 23세에서 40세
d 황은 (2000)	Hazan과 Shaver의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	5.89(.82)	3.60(1.07)	3.49(1.16)	-5.0***	.10ns	.05ns	기혼남성 376명 23세에서 40세

<sup>a</sup> 원래 5점 척도인 것을 황은(2000)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7점 척도로 환산한 것임

<sup>b</sup> 원래 10점 척도인 것을 황은(2000)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7점 척도로 환산한 것임

<sup>c</sup> 결혼한 대상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면서 동시에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중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한 연구

<sup>d</sup> 결혼한 대상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면서 동시에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중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한 연구.

\*\*\* p<.001수준에서 유의함 ns 유의하지 않음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회피형 문항과 불안정-양가형 문항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애착유형과는 관계없이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간의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 그리고 부정적 문항들간의 정적 상관관계도 역시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사용한 경우 나타난 상관관계와 비교할 때 상이하다(표5 참조). 더 나아가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와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간의 관계 및 두 측정도구의 직무애착과 직무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보면,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에 문제점이 있음이 분명해진다. 즉,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의 안정형 문항과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의 안정요인간( $r=.62, p<.001$ ) 그리고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의 불안정-회피문항과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의 불안정-회피 요인( $r=.40, p<.001$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의 불안정-양가형 문항과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의 불안정-양가요인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황은, 2000) 두 측정도구 중 불안정-양가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측정도구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고, 직무애착 및 업무의 질간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는 직무애착 및 업무의 질과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 상에서 나타난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의 안정형 문항과 불안정형 문항간의 극단적인 점수 차이와 부정적 문항인 불안정-회피형 문항과 불안정-양가형 문항간의 뚜렷한 정적상관관계, 그리고 이론적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는 종속변인인 직무애착과 직무의 질과의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는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가 비록 경제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뚜렷이 대비되는 단순한 문항으로 인해 이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할 때, 사회적 선호성이 작용하여 의도적인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는 달리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하였을 때 사회적 선호성이 작용하고 의도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III.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Hazan과 Shaver의 성인기 애착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활

용하고자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거나, 연령이 낮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할 때나 혹은 연구대상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 애착유형 분포에 있어서 안정형에 지나친 편중이 나타나, 연구분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기혼자를 대상으로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안정적인 애착유형의 불균형적인 높은 분포로 인해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연구분석에 사용한 Kobak과 Hazan(1994)의 연구와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안정적인 애착유형의 불균형적인 높은 분포로 인해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연구분석에 사용한 황은(2000)의 연구는 기혼자의 성인기 애착과 배우자에 대한 애착은 미혼자의 성인기 애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이 특수성은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가 더 잘 반영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 Collins와 Read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는 국내연구자들에 의해 각기 다르게 번역되었고, 신뢰도에서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이 번역상의 문제인지에 대해 먼저 검토가 요구될 필요가 있다.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형 측정도구는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한 연구에서 안정요인과 불안정-양가요인의 신뢰도는 적절한 반면, 불안정-회피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회피요인의 문항들이 불안정-회피적 애착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기술하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전문가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할 경우, 서로 뚜렷이 대비되는 단순한 문항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리커트 측정도구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선호도를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갖을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미혼인 경우보다는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애착측정도구의 선택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과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측정도구와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 때문에 배우자 애착측정도구로 활용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Hazan과 Shaver의 단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는 불안정-회피형 문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측정도구가 소개되지도 않고, 사용되지 않았으나, Brenen, Clark 과 Shaver(1997)은 32문항의 친밀한 낭만적인 이성관계유형 즉 성인기 애착유형 측정도구를 제시하였고, 이 32문항중에 불안정-회피애착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 마음속 깊은 생각, 감정등을 파트너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내 파트너가 나와 친밀해질려고 할때 나는 내 자신이 내 파트너를 나도 모르게 밀

4) 9쪽의 24줄에서 10쪽의 40줄까지의 내용을 의미함

어내고 있음을 발견한다' '내 파트너가 나와 매우 친해지기를 원할 때 불편하다' '나는 내 파트너에게 나를 개방하는 것이 불편하다' '나는 내 파트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뒷전에 머물러 있다' '나는 내 파트너가 나와 너무 친밀해지려고 할 때 신경이 예민해진다' '나는 내 파트너와 너무 친해지려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나는 내 파트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내 파트너가 너무 친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내 파트너가 원하는 안락함, 조언, 도움에 관심이 없다'이다. 이 문항들은 Hazan과 Shaver의 측정도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불안정-회피유형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행동패턴들임으로 불안정-회피애착에 해당하는 문항에 이 문항들을 추가하여 연구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한 연구가 될 것이다.

□ 접수일 : 2002년 7월 2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월 13일

【참 고 문 헌】

김덕일(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광배(1993). 사랑과 일에 대한 일-가정 상충효과 : 남성들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1), 212-225.

박성연, 조병은, 이정순, 유은희, 유명희, 이숙, 김상희, 최혜경과 박응임 (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대부모애착, 부부애착과 부부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모델과 4범주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발달), 10(2), 123-138.

전효정(1996). 갈등해소방법과 결혼적응도 : 애착유형, 비교수준과 동기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57-82.

정효택(1994). 사랑의 유형과 그 심리학적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병은, 유은희, 이정순과 최혜경(1996). 3세대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특성과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91-202.

황은(2000). 성인전기 남성의 배우자 애착과 직무성과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Barthor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Bowlby, J., & Parker, C. M.(1970). Separation and loss within the family. In E. J. Anthony & C. Koupernik(Eds.), *The Child in his family : international yearbook of child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s(197-216)*. New York: Wiley.

Brenen, Clark & Shaver(1997).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inventory. [Http://psychology.ucdavis.edu/shaver/ecl.html](http://psychology.ucdavis.edu/shaver/ecl.html).

Bretherton, I.(1992). The origin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759-775.

Caspi, A., & Elder, G. H, Jr.(1988). Emergent family patterns : the intergenerational construction of problem behavior and relationships. In R. A. Hinde & J. Steveson-Hinde(Eds.), *Relationship with families(218-240)*. Oxford, England : Clarendon Press.

Cicirelli, V.(1983). Adult children'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34-356.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Feeny, J.,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Fishler, p. H., Sperling, M. B., & Carr, A. C.(1990). Assessment of adult relatedness : a review of empirical findings from object relations and attachment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499-520.

Greenberg, M. T., Cicchetti, D., & Cummings, E. M.(1990).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iffin, D., & Barthoromew, K.(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George, C., Kaplan, N., & Main, M.(1985). *The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Holmes, J.(1993).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owes, P., Markman, H., Lindahl, C.(1990). *Contributions of attachment theory to the study of marriage : Theoretical and empirical rel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Kenny, M. E(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Kirkpatrick, L. A., & Davis, K. E.(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Kobak, R., & Hazan, C.(1991). Attachment in marriage : effects of

-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evy, M. B., & Davis, K. E.,(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 5, 439-471.
- Marcus, R. F., & Bertzer, P. D.(1996). Attachment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2), 248-255.
- McCormick, C. B., & Kenn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ikulincer, M., Florian, V., & Tolmatz, R.(1990). Attachment styles and fear of personal dea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3-280.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817-826.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ppini, D. R., & Roggman, L. A.(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s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Pallaino, Schultheiss, D. E., & Blustein, D. L.(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41(2), 248-255.
- Paterson, J. E., Pryor, J., & Field, J.(1995). Adolescent attachment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Parker, C. M.(1972).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adults lif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R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68, 561-565.
- Rice, K. G., & Cummings, P. N.(1996). Late adolescence and par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 an exploratory study of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75(September/October), 50-57.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73(March/April), 463-474.
- Ricks, M. H. (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11-230.
- Robert, J. E., Gotlib, J. H., & Kassel, J. D.(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Semchak, M., & Leonard, K. E.(1989). *Attachment styles, premarital relationship stages and marital functioning among newlywed couples*. Buffalo, New York: Research Institution on Alcoholism.
- Simpson, J. A.(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 Sperling, M. B., Berman, W. H., & Fragen, G.(1992). Classification of adults attachment : an integrative taxonomy from attachment and psychoanalytic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2), 239-247.
- Sperling, M. B., Foelsch, P., & Grace, C.(1996). Measuring adult attachment: are self-report instruments congru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7(1), 37-51.
- Sroufe, L. A., &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51-71)*. New York: Hillsdale.
- Weiss, R. S.(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eiss, R. S.(1977).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